

'임실에서 우리 함께 훈련 하개(犬)'

군, 오수 반려누리서 9월 5일까지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임실군이 반려동물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오수면에 위치한 오수 반려누리(임실군 반려동물 지원센터)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9월 5일까지 6주간 총 10회에 걸쳐 반려견 훈련사 기초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임실에서 우리 함께 훈련 하개(犬)'라는 주제로 오수지구 도시재생협장지원센터와 반려동물 전문가인 팻컴퍼니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오수에 있는 전북대학교 학생 등이 주요 대상이며,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군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반려산업과를 신설, 정책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교육은 동물농장 등 방송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이삭애견훈련소 이찬중 소장과 반려동물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진이 교육에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실군이 반려동물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들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중심의 실용적 교육과 과정 수료 후에는 자격 시험 응시와 취·창업 지원까지 연계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반려견 심리 및 행동학, △문제행동 교정, △기초 명령어 훈련 등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반려견 3등 훈련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가 제공된다.

반려견 훈련사 자격증은 반려동물 훈련소나 팻케어 센터 외에 반려견 유치원, 동물병원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 여기에 훈련소를 창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수요가 증가

고, 교육생들에게는 창업도 가능하다.

군은 훈련사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는 원광대학교(반려동물 산업학과)와 협약하여 반려동물 미용사 및 반려동물 관리사, 동물매개심리사 등 전문 교육과정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훈련사 양성 과정은 반려 산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산업과 지역경제, 관광이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 발효과학 동아리, 대전 탐방

순창군 발효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8일 대전과학체험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하며 과학 분야 진로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은 순창군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기획하고 장류전문인력 취·창업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탐방 첫 일정으로 방문한 대전과학체험관에서는 기초과학, 융합과학, 미래과학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 방문한 KAIST에서는 캠퍼스 투어와 함께 재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학 정보와 과학자의 실제 삶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적인 조언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지은 인재육성팀장



최명완 주무관



오상훈 주무관



이령우 주무관

임실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임실군이 군민 중심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실천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행정지원실 최지은 인재육성팀장은 맞춤형 교육사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교육-취업-정주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구 소멸 대응의 기반을 마련했다.

재무과 최명완 주무관은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 결과와 건축물대장을 일치화하는 정비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기여

했다.

주민복지과 오상훈 주무관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 정비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불법주차를 줄이는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제납액 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시켰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위생과 이령우 주무관은 자발적인 주니어보도 활동을 통해 조직 내 일하는 방식 개선과 행정 역신을 이끌었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청년 교류와 우수사례 확산에 적극 앞장섰다.

/임실=전충영 기자

폭염·폭우 대비 가축 피해 예방

순창군, 가축 관리 요령 안내·실태 점검 등 총력 대응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극지성 폭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이 지역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시설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7월부터 태풍·폭우·폭염 등 자연재해와 화재에 대비해 마을 방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축산 농가에 가축 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또한, 축종별(소·돼지·가금 등) 점검반을 편성해 각 농가의 사육 환경과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이 미비한 농가에는 사전 보안을 권고하는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소·돼지·가금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는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폭염 대응제 5톤을 지

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군은 축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폭염·폭우 대응 조치로 △축사 내 송풍팬 가동 등 냉방시설 운영 △단열재 및 그늘막 설치 △신선한 물과 양질의 사료 제공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의 실천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으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폭우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섬세적 대응을 통해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은 지난 8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잘 죽는다는 것'이 곧 '잘 살아가는 것'임을 전하는 뜻깊은 배움의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원시보건소와의 협력해 (사)소비자교육증양회 전북지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청,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서는 △삶을 정리하며 준비하



는 '웰다잉 10계명'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 돌봄의 이해 등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과 참여가 한층 깊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제12회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 열려

남원시는 지난 8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제12회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지역아동센터 협의회(회장 허경숙)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가족, 종사자, 내빈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1부 기념행사와 2부 운동회 행사가 진행되었다.

식전 공연으로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댄스동아리 팀인 '라온' 밴드가 식전 공연을 펼쳤으며, 1부 기념행사에서는 미술과 풍선 쇼를 진행하여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끌어들였다.

2부 체육행사에서는 몸풀기 게임, 오색 판 뒤집기, 돼지불이, 풍선 전쟁,



점프점프, 도전OX 퀴즈 등 아동들과 가족 모두 함께하는 단체 게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위해 (사)일일선 인성운동본부(회장 허성민)에서 물타슈를 후원하였으며, 춘향 라이온스클럽(회장 여주현)에서 5명의 아동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여름철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점검

남원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하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리산 부근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남원시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대상은 하천구역 내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그늘막 등으로 하천법에 위반되는 불법 점용 행위 정반을 포함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즉시 시정하거나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천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하거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일제 점검은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서, 소년법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지난 8일 순창경찰서 회의실에서 소년법에 대한 실질적 계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란 경미 범죄 소년법에 대해 형사입건 대신 훈방, 즉결심판 등 감경 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지원을 강화하는 심의 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2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 경미범죄 소년법 1명에 대한 처분 결정을 심의해서 감경처분 했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 4명에 대해 환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생활지원 결정을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